

환경교육
The Environmental Education
1997. 10권 2호 pp. 75-85

청소년의 환경 의식과 태도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 한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

이 무 춘 (연세대학교)

강 명 휘 (연세대학교)

김 귀 곤 (서울대학교)

정 용 승 (한국교원대학교)

최 석 진 (한국교육개발원)

I. 서 론

환경오염 문제가 점차 악화되어 지면서 환경 보전과 개발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한편으로는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환경문제 해결 방법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환경 교육은 중요하며, 그 중에도 앞으로의 개발과 보전을 담당할 청소년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환경교육 발전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환경문제는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지구적 성격이 강하므로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의 환경 의식과 태도에 관한 한국·호주 비교 조사 연구는 의의가 더욱 클 것이다.

이 연구는 본래 호주의 Melbourne대학교 David Yencken교수와 Griffith대학교 Jhon Fien 교수 등의 기획에 의한 “청소년과 환경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환경지식과 태도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 교육 담당 교사와 환경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환경교육지식, 태도, 방법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이고, 나아가 환

경 교육 계획 수립자와 교육 과정 개발자 및 태평양 국가나 서양문화권인 호주와 협력하여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그 최종 목표는 환경 교육 및 환경 정책 수립과 내용 조직에 기본 자료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우리 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환경 교육과 관련 교과 교육에 기초자료로 사용이고, 둘째는 현재 개정 작업중인 제 7차 교육과정의 총론 및 각론 - 환경과의 관련 교과 - 개발에 활용, 셋째는 각종 환경 교육 자료와 교수 - 학습 방법 등에 기초 자료로 사용, 넷째는 청소년의 의식과 가치, 태도와 관련된 교육 심리, 상담 활동 지도 등에 사용, 마지막 다섯째는 우리 나라 환경 계획과 정책 수립에 활용등의 방안이 예측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국제비교는 호주의 Brisbane시의 연구결과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연구결과를 비교하여 양국간의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차이에 따른 환경의식의 차이와 환경교육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II. 연구 방법

청소년들의 환경 의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의 조사 지역을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로 구분하여서 대도시에는 서울시(성동여자 실업고등학교, 혜원여자 고등학교, 동북고등학교)에 3개 학교, 중도시에는 용인시(태성고등학교, 용인상업고등학교, 용인고등학교)의 3개 학교, 소도시에는 철원군 김화읍(김화고등학교)의 1개 학교를 채택하였다. 위의 7개 학교에 각 학교당 150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여서 총 1200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나 회수된 설문지는 1016부였다. 또한 응답자의 성별, 학년, 관심분야등을 세분하여 조사하여 전체적인 평가에 참조가 되도록 하였다.

조사내용의 범주 및 조사항목은 환경의식, 환경의식, 태도등에 관한 범주에 대해 대분류하면 29개의 문항, 소분류하면 10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설문 조사 방법은 각 학교에 설문지를 발송하여 각 학교별로 3학급을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에 설문지를 회수하여 전체적으로 회수된 설문지를 통계 처리를 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조사 및 처리된 우리 나라의 결과를 호주 Brisbane시 고등학교의 결과와 항목별로 살펴서 그 차이점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검토방식은 같은 문항별로 엮어서 그 차이를 서술하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이는 호주와 우리 나라 실시한 조사 설문의 내용이 동일하였기에 가능하였다.

III. 조사 결과 분석

1. 응답자의 현황 분석

지역별, 성별, 학년별, 관심 분야별 응답자의 현황을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응답자의 남녀 비율은 한국이 36.7% : 63.3%로 여자의 비율이 높았고, 호주의 경우는 51.9% : 40.8%로 거의 비슷하지만 남자의 비율이 높은 결과를 <표 1>에서 볼 수 있다.

<표 1> 응답자의 성별 분포

구분	한국	호주
남자	36.7 %	51.9 %
여자	63.3 %	40.8 %

설문지에 응답한 학생들의 관심 분야는 한국의 경우 인문계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학계열과 예술계열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었다. 또 호주의 경우는 이학계열이 가장 많았고 기타분야의 응답 비율도 높았다. 결과는 <표 2>에서 보여 주고 있다.

<표 2> 응답자의 관심 분야 분포

구분	한국	호주
이학계열	23.3 %	39.8 %
인문계열	31.8 %	24.3 %
예술계열	28.9 %	8.5 %
기타	16.0 %	24.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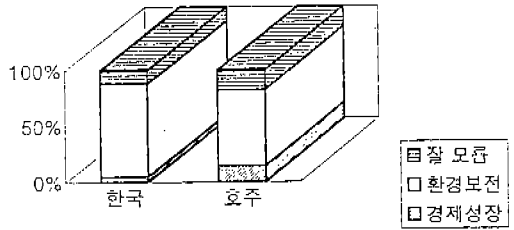
다음 <표 3>에서는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였기에 17세의 응답비율이 한국과 호주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구 분	한국	호주
15세	-	0.3 %
16세	-	18.3 %
17세	57.7 %	67.0 %
18세	31.8 %	11.7 %
19세	10.6 %	1.6 %
기타	-	1.6 %

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호주의 학생들은 '경제 성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에도 14.2%나 응답해서 한국의 4.8%에 비하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도

2. 환경 보전의 관심도와 의식 수준

위의 〈그림 1〉에서는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한국과 호주의 비교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양국이 다 '환경 보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에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

다음의 〈표 4〉에서는 환경과 기술에 관한 12 항목의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결과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 12항목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항목 B를 제외하고는 한국과 호주의 답변은 다소 예상과는 달리 한국 응답자는 전통 자연관과 거리가

〈표 4〉 환경과 기술에 관한 응답자의 관점

환경과 기술에 대한 비교		한국	호주
A	과학과 기술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73.6 %	62.2 %
	과학과 기술은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4.8 %	7.8 %
	중립	21.6 %	29.3 %
B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생물종과는 달리 자연의 법칙에 복종하지 않는다	33.7 %	12.3 %
	우리는 인간으로서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생물처럼 복종한다	29.9 %	57.6 %
	중립	36.4 %	28.7 %
C	사람은 가능하다면 어디에서든지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한다	61.6 %	85.0 %
	환경은 사람의 욕구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	15.5 %	4.6 %
	중립	22.9 %	9.6 %
D	현대 기술은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제한한다	21.3 %	20.6 %
	현대 기술은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증대시킨다	41.9 %	40.5 %
	중립	36.9 %	37.9 %

환경과 기술에 대한 비교		한국	호주
E	천연자원은 차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74.6 %	72.4 %
	천연자원은 현세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6.9 %	5.7 %
	중립	18.6 %	21.0 %
F	현대 산업 국가들은 심각한 정도로 자연의 균형을 파괴한다	79.9 %	74.2 %
	자연의 균형은 충분히 현대 산업 국가들의 충들에 대처할 수 있다	8.0 %	6.7 %
	중립	12.2 %	17.0 %
G	지구는 유한한 공간과 자원을 가진 우주선과 같다	63.6 %	79.9 %
	지구는 거의 한정되지 않은 공간과 자원으로 거대하다	13.5 %	11.9 %
	중립	22.8 %	12.2 %
H	사람은 살아남기 위하여 자연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5.6 %	11.4 %
	사람은 살기 위해 자연과 조화하며 사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88.1 %	74.4 %
	중립	6.3 %	13.0 %
I	과학과 기술은 항상 당면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6.4 %	15.2 %
	과학과 기술은 종종 그들의 해결 범위 이상의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51.5 %	43.8 %
	중립	32.1 %	39.7 %
J	복잡한 기술은 항상 인간의 실수 가능성 때문에 위험하다	44.6 %	47.8 %
	복잡한 기술은 사실상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위험하지 않다	9.5 %	13.3 %
	중립	45.9 %	37.9 %
K	경제 성장은 환경 보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6.6 %	9.5 %
	환경 보전은 경제 성장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72.6 %	56.3 %
	중립	20.9 %	32.8 %
L	자연은 인간을 위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14.5 %	14.3 %
	자연은 그 자체가 존재의 가치가 있으므로 보존되어야 한다	44.7 %	51.9 %
	중립	40.8 %	32.8 %

던 응답을 하여 호주 응답자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비율의 차이만 있을 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의식은 같음을 알 수 있었다. 이 <표4>에서는 환경과 기술의 관한 많은 질문이 이루어 졌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면 한국과 호주의 학생들은 기술보다는 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3. 비환경적 행동의 원인

다음의 <표 5>은 비환경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10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표 5>에서는 비환경적 행동의 원인들과 그에 따르는 비율을 한국과 호주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양국이 모든 항목에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여 비환경적 행동의 원인이 어느 한 가지

〈표 5〉 비환경적 행동의 원인

구분	한국	호주
1. 나는 어떤 행동이 환경에 해롭고 해롭지 않은 지를 분명히 구분하지 못한다	9.0 %	11.7 %
2. 비용 문제 : 나는 돈을 절약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	7.0 %	10.3 %
3. 나는 환경 보전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8.0 %	3.9 %
4. 나는 시간이 없다	6.0 %	11.3 %
5. 환경 같은 문제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 것이 더 편리하고, 더 편하다	7.0 %	9.8 %
6. 나의 행동이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않는다	7.0 %	14.5 %
7. 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환경 파괴를 믿지 않는다	13.0 %	4.6 %
8. 나는 학교, 정부, 지방의회 같은 권위 집단에 의해 행해지는 환경 보전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12.0 %	4.5 %
9. 나는 친구와 함께 하는 일외에 다른일을 하고 싶지 않다	12.0 %	2.7 %
10. 나는 내가 때때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실제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8.0 %	15.6 %
11. 기타	11.0 %	11.3 %

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환경 파괴를 믿지 않는다'(13.0%)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고, 호주의 경우에는 '내가 때때로 환경에 나쁜

〈표 6〉 환경 용어에 대한 인식 여부

환경 용어	들어본 적이 있다 (%)		학교나 집에서 토의했었다(%)	
	한국	호주	한국	호주
1 탄소주기	22.6	37.5	16.2	22.8
2 지속 가능한 발전	54.4	28.6	25.1	12.0
3 생물 다양성	33.3	25.2	55.7	11.0
4 재생 가능 자원	33.1	46.3	62.1	35.0
5 생태학	33.3	45.9	58.3	33.4
6 세대 사이의 공평	36.3	18.9	29.2	6.3
7 예방의 원칙	32.9	10.4	29.1	2.3
8 온실효과	18.7	49.1	77.0	45.1
9 오존층	11.8	48.9	87.4	45.6
10 환경 수용 능력	38.7	28.0	46.2	13.4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실제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15.6%)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졌다.

4. 환경 용어에 대한 인식도와 올바른 지식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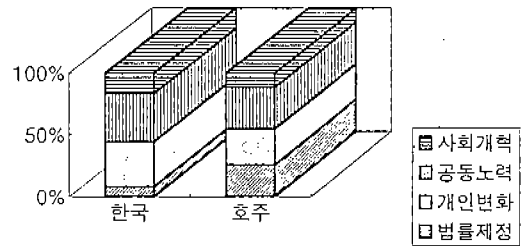
<표 6>에서는 환경 용어에 대해 얼마큼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표 7>에서는 각 용어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이다.

<표 7>에서는 <표 6>에서 다루었던 환경 용어에 대해서 각 용어에 대해서 그 의미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였고 그 결과를 <표 7>에 정리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의 학생들이 호주의 학생들보다 정확한 개념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학생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 생물 다양성, 세대 사이의 공평, 예방의 원칙, 온실효과, 오존층에서는 정답률이 50% 이상이 되었지만 그 나머지는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현재 많이 거론되었던 용어들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호주의 학생들은 생물 다양성, 재사용 가능한 자원, 세대 사이의 공평, 온실효과에 대한 용어의 개념 파악이 잘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양국의 학생들 모두 매스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양국 모두 보다 효과적인 환경 교육이 요구되어진다.

5. 환경질 개선에 대한 의식과 행동방법

환경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과 그에 따른 필요 정도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한국의 경우는 사회적 공동 노력, 개인 생활양식의



<그림 2> 환경질 개선의 필요성 여부

<표 7> 환경 용어에 대한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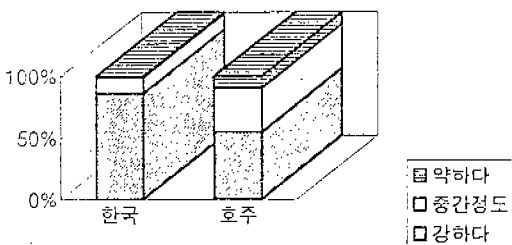
환경 용어		올바른 응답 구성비 (%)		잘 모르겠다 (%)	
		한국	호주	한국	호주
1	탄소주기	22.6	47.5	61.5	34.3
2	지속 가능한 발전	54.1	24.9	19.9	44.5
3	생물 다양성	54.6	77.0	3.7	6.1
4	재생 가능 자원 (용어)	13.1	57.5	7.9	10.2
5	재생 가능 자원	44.4	56.9	15.7	17.2
6	생태학	18.5	48.8	6.0	13.9
7	세대 사이의 공평	60.1	60.7	17.1	31.0
8	예방의 원칙	63.1	19.5	20.2	53.8
9	온실효과	60.9	68.9	7.5	6.0
10	오존층	70.0	35.1	4.2	10.4

<표 8> 환경 개선을 위한 행위와 행위 정도

환경적 행동		할 생각이 있다 (%)		한 적이 있다 (%)	
		한국	호주	한국	호주
1	환경 친화적 가정용 물품을 선택한다	67.3	47.1	24.2	30.5
2	환경 보전 혹은 개선의 목적을 가진 모임 등에 참석한다	41.9	38.7	3.4	18.0
3	재사용 혹은 재활용한다	50.5	46.9	44.5	36.6
4	환경에 해로운 행위와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70.5	43.3	21.3	20.3
5	환경 정화 캠페인에 참가한다	58.1	40.3	11.5	11.2
6	반환경적인 것에 대해 알려거나 불만을 나타낸다	48.8	38.8	17.2	6.1
7	물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55.5	43.8	37.0	24.8
8	환경분야의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55.3	37.0	5.1	8.8
9	나무 심는 행사에 참여한다	63.0	43.2	8.0	12.5
10	환경 단체나 자연보호 단체를 위해 기증이나 기부를 한다	48.8	39.2	2.1	12.1

변화, 근본적인 사회 개혁, 법률 제정과 단속의 순서로 중요도를 두었는데 호주에서는 사회적 공동 노력, 개인 생활양식의 변화, 법률 제정과 단속, 근본적인 사회 개혁의 순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하는 것을 사회적 공동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그림 3>에서는 환경질 개선을 희망하는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그림을 살펴보면



<그림 3>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도

한국(86.0%)이 호주(53.9%)에 비하여 환경질 개선에 대한 희망의 비율이 높았다. 그 결과를 보았을 때 한국의 학생들이 환경질 개선에 대해서 더 희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면 한국이 호주보다 환경질이 낮기 때문에 개선의 희망이 높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다.

<표 8>에서는 환경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행동들과 그에 대한 실천 정도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응답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한 행동을 할 생각이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호주 응답자들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다 높았다. 그러나 실천면에 있어서는 반대의 현상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항목중 혼자서 실천이 가능한 항목은 50%이상의 긍정적 응답을 하였으나 그 외로 캠페인 참가나 외부로 알려거나 모임 등의 참석하는 항목에서는 소극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한국이나 호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환경 활동에 대한 교육이 행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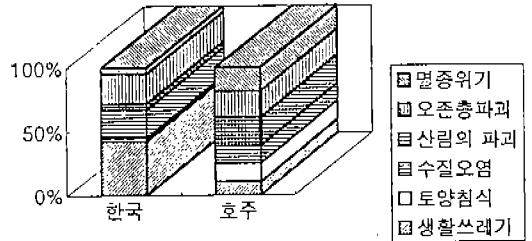
다음에는 환경질 개선을 위한 활동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주변인들과 그에 대한 지원도를 <표 9>에 정리하였다. 호주의 경우는 가까운 친척과 환경과 관련하여 만났던 사람들이 각각 81.8%, 8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한 친구, 선생님, 친분 있는 사람들의 순이었다. 한국의 경우는 가장 높은 비율이 선생님, 그 다음으로 환경과 관련하여 만났던 사람들, 친한 친구, 친분 있는 사람들, 가까운 친척의 순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로 한국의 경우는 환경에 관한 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호주의 경우는 가장 근접한 주변 친척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표 9> 환경질 개선을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 정도

지원 받는 주변	한국	호주
가까운 친척	36.3 %	81.8 %
친한 친구	63.8 %	70.4 %
친분 있는 사람들	52.7 %	58.8 %
우연히 환경과 관련하여 만났던 사람들	68.0 %	81.5 %
선생님	76.8 %	6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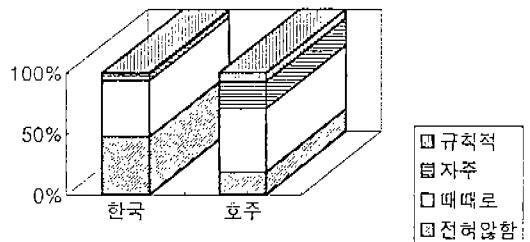
6. 당면한 주요 환경문제의 의식 여부

위의 <그림 4>에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중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점의 선택 결과이다. 모두 12가지의 환경 문제가 제시되었고 그 중 비율이 높은 6가지 항목을 나타내어 비교하였다. 한국에서는 생활쓰레기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여 여기고 있고, 여기에 focus가 맞추어져 있다. 호주에서는 어느 부분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고루 고루 분포되어 있는 양상이다. 이 중 산림의 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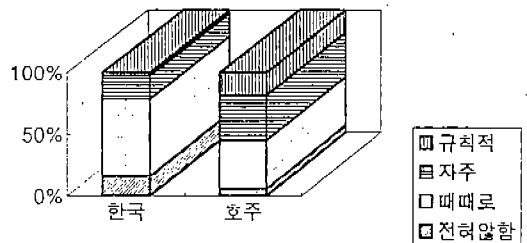


<그림 4> 현재의 환경문제중의 중요도

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 많은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호주에서는 산림과 동·식물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주변 생태계에 관한 폭넓은 인식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환경보전에 대한 토론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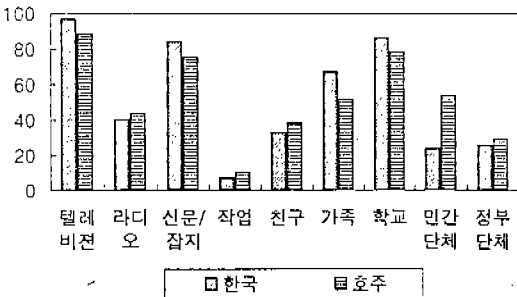
<그림 6> 환경문제에 대한 고찰정도

위의 <그림 5>에서는 환경문제 대해서 주변인들과의 의견 교환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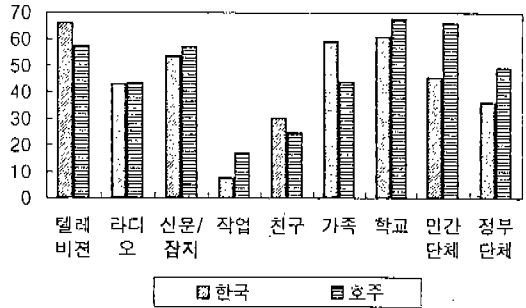
나타나 있듯이 '때때로 토론을 한다'가 한국(46.4%)과 호주(49.7%)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으나 한국의 경우는 '전혀 토론을 하지 않는다'(47.2%)가 호주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이의 결과를 보면 호주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는 좀더 환경 교육에 투자를 하여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그림 6>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은 때때로 하는 환경에 대한 고찰이 지배적(62.4%)이고, '자주한다'와 '규칙적으로 한다'의 비율은 낮다. 반면 호주는 '때때로 한다'와 '자주한다'가 대부분을 차지(72.6%)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학생들이 주체적인 환경문제에 태도가 부족함을 알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를 향상시켜 주는 것도 환경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판단된다.

7. 환경 정보의 출처와 그 신뢰도

위의 <그림 7>과 <그림 8>는 환경 정보의 출처와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양국 모두 가장 큰 정보의 출처는 텔레비전과 신문/잡지로 보고 있어 환경 정보에 대한 부분은 역시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한국과 호주를 비교하여 본다면 민간단체, 정부단체, 학교, 신문/잡지에 호주 학생들이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고, 한



<그림 7> 환경보전의 출처



<그림 8> 환경보전의 신뢰도

국의 학생들은 텔레비전, 친구, 가족에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텔레비전이나 학교, 신문/잡지 등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 론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도는 경제와 환경을 비교하여 볼 때 경제 성장보다는 환경 보전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양국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높은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도는 태도에 직접 반영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양국의 학생들은 모두 환경과 기술중 환경이 더 우선시 되어져서 사회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적으로 비환경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양국의 응답 비율이 차이를 보는데 한국의 학생들은 자신들은 환경을 파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면 호주의 학생들은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환경 용어에 대해서는 양국의 학생들의 환경 용어에 대한 지식 정도는 다르지만 그 다른 정도를 보면 각국의 사회·문화적 차이라고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 교육에 대해서는 더욱 효과적

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질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환경질을 개선해야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동 노력이 요구되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학생들의 경우는 적극적인 활동에 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질 개선을 위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주변인을 선생님으로 꼽고 있어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되어진다.

양국의 응답자들의 공통점은 환경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텔레비전, 신문, 잡지)등에서 많이 얻고 있고 그러한 대중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교육을 단순히 학교 교육에 의지해서는 안되고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호주 학생들의 환경의식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은 몇가지 응답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결론중 한 가지는 한국과 호주 학생들의 응답의 차이가 의식의 차이뿐이 아니라 사회상의 반영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단지 환경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전체적인 사회의 의식개혁이 앞서 행해져야 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또한 한국 학생들의 의식 수준이 호주 학생들의 의식 수준 보다는 아직 미숙하다고 보이므로 환경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교육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귀곤(1994). 고교생의 환경 및 도시문제에 대한 태도연구. 교원월보, 제 147호

대륙연구소(1990), 환경 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이무춘, 정재춘(1994). 음식물 퇴비화에 대한 주민 의식조사. 환경 교육 제6권. 한국교육학회

이선경(1993). 학교 환경 교육의 문제점과 자기환경화를 통한 환경교육전략의 효과.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은영(1992). 환경오염에 대한 중학생의 태도평가 도구 개발.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석진(1994). 국민들의 환경 의식과 환경 보전. 국회사무처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1995). Environmental Issue : People's Views and Practices, AGPS, anberra

Bickmann, Leonard (1992), Environmental Attitudes and Action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7

John Fien, Davis Yencken, Helen Sykes (1996), Young People and the Environment : On International Study of Environmental Knowledge and Attitud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 Country Coordinators, Hand Book,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Abstract〉

**An International Study of Environmental Knowledge
and Attitudes of Young People
- Korea and Australia -**

Mu-Choon Lee (Yonsei University)

Myoung-Hwi Kang (Yonsei University)

Kwi-gon Kim (Seoul National Univ)

Young-Sung Chu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uk-Jin Choi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We handed out questionnaires to some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find out the Environmental Consciousness, Knowledge, Values, and Attitudes of young people in Korea. The difference in such things of high school students between Korea and Australia was analyzed by comparison with each other. It is revealed that the Environmental Knowledge of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is valued significantly high degree in most cases from this study. It is, however, not due to their Environment-Friendly Attitudes and besides the Environmental Terms are hardly understood to most of them. The Environmental concerns of young people in Korea and their view on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 which are not in accordance with those of young people in Australia on most issues, must have been mainly affected by differences in society, economy, education, and cultural background between the two countries.

